

뜻깊게 보낸 3.8 국제부녀절



은을 내는 농업과학기술보급홈페이지

《 황금별 》

공화국에서 농업과학기술보급홈페이지 《황금별》을 통하여 앞선 영농기술과 함께 우수한 단위들의 경험을 터득하고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거두는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지난해 안악군 안악농장에서는 《황금별》홈페이지를 리

용하여 습득한 논벼기삭모재 배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불리한 조건에서도 튼튼한 벼모를 길러냈다. 또한 큰 알노소비를 만들어 깊은층 비료주기를 하는 등 여러가지 선진영농기술을 도입하여 그 전해보다 정보당수확고를 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명간군 하월협동농장에서 도 《황금별》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진영농기술자료를 수집하고 농장원들이 이것을 학습에 리용할수 있게 조직사업을 짜고치고있다.

특히 앞선 재배기술을 도입한 포전과 그렇지 못한 포전에서 농작물생육상태를 놓고 농장원들이 실지 과학적인 농사방법이 어떤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하고있다.

축산과 과수, 남새를 비롯한 농업생산단위들에서도 《황금별》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열심히 배우려는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계남목장에서 《황금별》홈페이지에서 축산과 관련한 선진과학기술자료를 얻고 하나하나 도입하면서 집집승기르게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것 기사장은 《종영원들이 자기 부문의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자료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모두가 기술학습에 배가의 힘을 들이고있다. 《황금별》홈페이지가 농업생산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런어매운볶음

조미료에 재운 런어살편을 기름에 튀기고 볶는 다음 즙을 쳐서 만든 요리이다.

고기기는 기름지고 맛이 좋으며 특히 알은 고급식품으로 쓰인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런어살편 200g, 달걀 노른자 1개, 양파 10g, 물농마 20g, 다진 파 10g, 참깨 1g, 참기름 0.5g, 식초 5g, 사랑가루 3g, 소금 2g, 맛내기 1g, 후추가루 0.5g, 기름 5g을 준비한다.

런어살편은 2cm 크기의 정방형으로 썰어 다진 파, 참깨, 맛내기, 후추가루, 소금, 참기름을 두고 재운다.

볶은 사자고추와

푸른 사자고추는 씨를 털어내고 편으로 썬다. 양파도 편으로 썬다.

재운 런어살편을 기름에 튀겨 편으로 썬 볶는 사자고추, 푸른 사자고추, 양파와 함께 살짝 볶는다. 여기에 사랑가루와 식초, 물농마를 섞어 만든 즙을 쳐서 그릇에 담아 낸다.

이렇게 하면 먹음직스러운 런어매운볶음이 완성된다.

본사기자



웃모리 두 깍쟁이

청주깍쟁이가 소, 개, 닭을 각각 한마리씩 끌고 충주깍쟁이를 찾아갔다.

청주깍쟁이가 자기 이름을 쓴 종이장을 들이미니 충주깍쟁이는 당신이 보자마자 얼른 거기에 풀을 발라 자기 집의 찢어진 창문에 붙이고 나서 물었다.

《어인 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청주깍쟁이: 《당신의 깍쟁이춤이 여간 아니라는 소문을 듣고 이미 썰매고 버린 송씨라도 좀 배울가 해서 왔습니다.》

충주깍쟁이: 《그런데 저 소, 개, 닭은 무엇에 쓰러는 것입니까?》

청주깍쟁이: 《소는 집을

실기 위해 끌고 왔고 개는 소가 눈 툽을 먹게 하고 닭은 개통에 섞인 난알을 쪄야먹게 하고고 끌고 왔습니다.》

충주깍쟁이: 《깍쟁이춤씨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오호러 내가 당신의 그 송씨를 배워야겠는데 어찌 내게서 배우겠다고 합니까?》

청주깍쟁이는 할수없이 자기의 이름을 쓴 종이장을 들고 매가지고 충주깍쟁이의 집으로 나갔다. 그가 몇리쯤 실려왔는데 충주깍쟁이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청주깍쟁이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였다.

《이름을 썼던 종이장에 우리 집에서 바른 풀이 붙어 있습니다. 어서 그걸 긁어서 주고 돌아가길 바랍니다.》

조선시조새화석

조선시조새화석은 신의주시에 분포된 중생대 유라기 상생층인 신의주통의 3번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새의 조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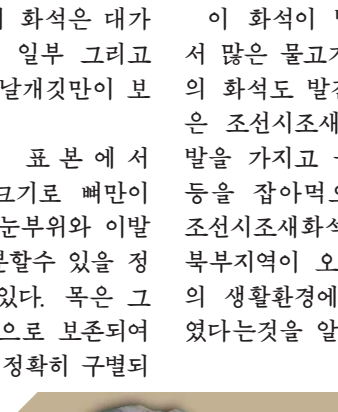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약 1억 5천만년전의 지층에서 나왔다.

조선시조새의 화석은 대가리뼈와 목뼈의 일부 그리고 한쪽날개뼈와 날개깃만이 보존되어있다.

대가리는 표본에서 32x15mm의 크기로 뼈만이 나타나있는데 눈부위와 이발이 비교적 구분할수 있을 정도로 보존되어있다. 목은 그 일부만이 화석으로 보존되어있고 마디뼈는 정확히 구별되어있지 않다.

한쪽날개뼈가 잘 보존되어있는데 날개뼈의 상박골과 척골, 요골, 장골, 지골이 아주 명확하다. 또한 날개깃자리가 희미하게 보존되어있다.

본사기자



백의종군원 말이나 (2)

그림 채대성

그해 1월, 리순신은 사복시(중종에서 쓰는 말과 마구 말을 말아보는 관청)의 주부(비서)가 되고 발탁으로 수직을 세우는 한편 북병사에게 군사를 보충해줄것을 청원하였다.

《지금 북쪽에는 곡식이 잘되어 군량미로 쓰기 충분할것이나 본토와 멀리 떨어져있고 군사가 적으므로 오랑캐의 로략질을 당할가 두렵소이다. 청진대 군사수요를 늘여주시 바랍니다.》

리순신의 이러한 청원을 받은 북병사 리일은 시꺼먼 채수업을 호기있게 받아들여 리순신은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8월(음력)도 거의 지나갈 무렵 그는 선손을 써서 북쪽의 곡식을 배어들이기로 결심하였다.

안개가 자욱히 낀 어느날 아침이었다. 리순신은 경비서는 군사 몇명만 남기고 나머지지는 모두 주변마을사람들과 함께 북쪽으로 들어가서 곡식을 배어들이게 하였다.

군사들과 마을사람들이 떠난 후 한동안 지났을 때 목책문을 지키고있던 군사가 문득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오랑캐! 오랑캐! 무리가 쳐들어온다!》

리순신은 군관 리운룡과 합

계 급히 밖으로 나가 적의 동태를 살폈다. 목책을 에워싸며 접근하는 오랑캐군사들의 모습이 걸리기 시작한 안개속으로 희미하게 안겨왔다. 붉은 옷을 입은 놈들 서너명은 말을 타고 선두에서 호기있게 달려오고있었다.

리순신은 문을 굳게 닫고 목책문으로 활을 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맨앞의 놈을 쏘아떨어주었다.

그뒤를 이어 군관 리운룡

를 비롯한 군사들이 쏘는 화살에 놈들은 런어려 꺼꾸러졌다. 적들의 화살도 비발치듯 날아왔으나 목책에 쫓겨온 사람용 해치지는 못하였다.

붉은 옷을 입은 두목들이 쓰러지니 나머지놈들은 겁에 질려 갈팡질팡하였다.

그것을 본 리순신은 열명도 되나마나한 군사들을 이

무릎관절증이 있을 때 주의할 점

◇ 무릎을 심하게 굽히고 오래 앉아있지 말아야 한다.

◇ 무릎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 그러자면 비만을 없애는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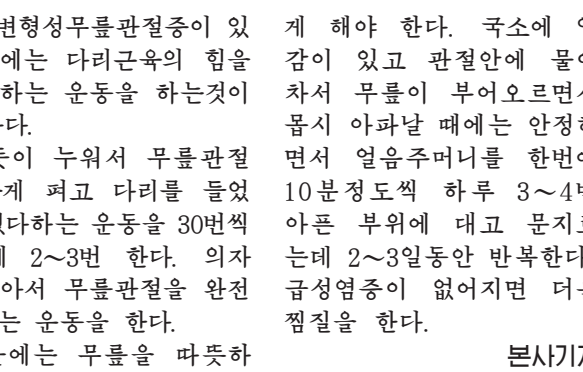
◇ 앉아있거나 서있다가 걸으려고 할 때에는 걸음을 떼기 전에 무릎운동을 여러번 하는것이 좋다.

◇ 변형성무릎관절증이 있을 때에는 다리근육의 힘을 세게 하는 운동을 하는것이 중요하다.

◇ 반듯이 누워서 무릎관절을 펴고 펴고 다리를 들었던 다내었다하는 운동을 30분씩 하루에 2~3번 한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관절을 완전히 펴는 운동을 한다.

겨울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극소에 열감이 있고 관절안에 물이 차서 무릎이 부어오르면 몸이 아파날 때에는 안정하면서 얼음주머니를 한번에 10분정도씩 하루 3~4번 아픈 부위에 대고 문지르는데 2~3일동안 반복한다. 금성염증이 없다면 더운 찜질을 한다.

본사기자



발갈이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씨도 잘 썼지만 특히 그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조선봉건왕조후반기 화가인 윤두서의 그림이다.

그림가운데에는 야산 밑에서 소를 부려야 부지런히 밭을 가는 농민을 그렸으며 오른쪽 아래에는 소를 풀어놓아 풀을 뜯어먹게 하고 팔배개하고 누운 소몰이군이 이를 그렸다.

당시 도포자락을 날리며 동자를 데리고 다니는 인물들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던것과는 달리 농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인물풍속화인것으로 하여 이 그림은 특별히 부각된다.

본사기자

이날 저녁까지 밤새도록 적아간의 산병전이 벌어졌으며 다음날 날이 밝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참령님이 자결하였다.》

조선군대가 강제해산되자 시위대 보병 제1연대 1대대장 참령 박성환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속에 어찌할줄 몰라하는 군사들안에 나서서 결사전을 호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당시 시위대 제1연대 부위로 있던 남상덕이었다.

그의 호소에 1000여명의 군인들이 제각기 군영으로 달려가 총을 잡고 호응해나섰다.

남상덕의 지휘밑에 병사들은 일본군관들을 처단하고 병영을 포위하고있던 적들을 맞아 총격전으로 병영문을 돌파한 다음 거리로 뿔뚝나와 일제놈들을 보는 족족 쏘아눅혔다.

무장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군인들이 시내에 나서자 노동자, 청년학생, 상인 지어는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모두가 합류하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은 일제놈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리였으며 싸우다가 탄약이 떨어지면 육박전으로 원수들을 무찔렀다.

이날 저녁까지 밤새도록 적아간의 산병전이 벌어졌으며 다음날 날이 밝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참령님이 자결하였다.》

조선군대가 강제해산되자 시위대 보병 제1연대 1대대장 참령 박성환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속에 어찌할줄 몰라하는 군사들안에 나서서 결사전을 호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당시 시위대 제1연대 부위로 있던 남상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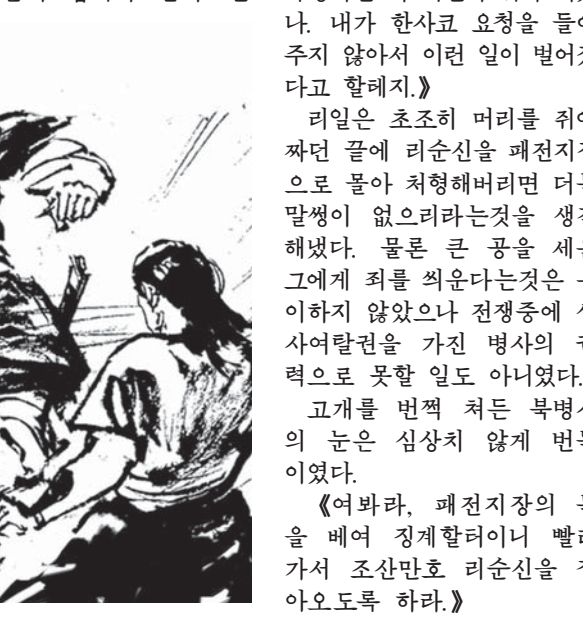
그의 호소에 1000여명의 군인들이 제각기 군영으로 달려가 총을 잡고 호응해나섰다.

남상덕의 지휘밑에 병사들은 일본군관들을 처단하고 병영을 포위하고있던 적들을 맞아 총격전으로 병영문을 돌파한 다음 거리로 뿔뚝나와 일제놈들을 보는 족족 쏘아눅혔다.

무장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군인들이 시내에 나서자 노동자, 청년학생, 상인 지어는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모두가 합류하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은 일제놈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리였으며 싸우다가 탄약이 떨어지면 육박전으로 원수들을 무찔렀다.

본사기자 리철민



이날 저녁까지 밤새도록 적아간의 산병전이 벌어졌으며 다음날 날이 밝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참령님이 자결하였다.》

조선군대가 강제해산되자 시위대 보병 제1연대 1대대장 참령 박성환이 그에 항거하여 자결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속에 어찌할줄 몰라하는 군사들안에 나서서 결사전을 호소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당시 시위대 제1연대 부위로 있던 남상덕이었다.

그의 호소에 1000여명의 군인들이 제각기 군영으로 달려가 총을 잡고 호응해나섰다.

남상덕의 지휘밑에 병사들은 일본군관들을 처단하고 병영을 포위하고있던 적들을 맞아 총격전으로 병영문을 돌파한 다음 거리로 뿔뚝나와 일제놈들을 보는 족족 쏘아눅혔다.

무장폭동을 일으킨 시위대 군인들이 시내에 나서자 노동자, 청년학생, 상인 지어는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모두가 합류하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은 일제놈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리였으며 싸우다가 탄약이 떨어지면 육박전으로 원수들을 무찔렀다.

본사기자 리철민